

호쾌한 방망이 '진짜 승부' 시작됐다

6연승 KIA, 상승세 SSG·NC와 시즌 첫 격돌
‘이의리 공백’ 메울 김건국, 김광현과 맞대결
‘최고참’ 최형우 4000루타 대기록 달성 관심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6연승의 KIA 타이거즈가 '진짜 승부'에 나선다. KIA는 16일부터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19일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와 '흥행의 핵'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지난주 KIA는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장식했다.

LG와 3연전에서는 이의리의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에도 마운드 힘을 보여주며 스윙을 거뒀고, 한화 원정에서는 5개의 홈런을 합작하는 등 뜨거운 타격으로 연승을 이었다.

이의리·박민이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했고, 풀업 1순위였던 윤도현도 같은 날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KIA는 타선의 고른 활약으로 부상 공백을 메웠다. 박찬호에 이어 박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기회를 얻은 홍중표는 첫 타석에서부터 적시 3루타를 기록하는 등 확실한 어필 무대를 선보였다. '베테랑' 서건창도 1·2루를 오가면서 KIA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다.

부상 약재에도 6연승은 이뤘지만 쉽지 않은 한 주가 기다리고 있다.

SSG와 NC는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은 팀들이다.

또 앞서 '잇몸 야구'로 부상 공백을 지냈던 KIA

지만 이번 주는 상황이 다르다. 막강 필승조로 초반 승수를 더했던 KIA는 추격조의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화전에서는 외야의 실책을 더해 7회 7실점이라는 악몽의 순간을 경험했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에서 추격조가 흔들리면서 필승조의 부담이 커졌다.

전천후 투수 임기영의 부재가 느껴지는 불펜 상황, 여기에 팔꿈치 통증으로 빠진 '선발' 이의리의 공백도 KIA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KIA 선발전에서는 조기 강판된 이의리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승리투수가 되면서 선발전의 흐름은 좋다. 특히 화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를 책임졌던 제임스 네일은 올 시즌 KIA 투수 중 가장 먼저 7이닝도 채웠다.

하지만 이의리가 빠지면서 당장 16일 경기부터 '대체 선발'이 가동된다. 로테이션상으로는 21일에도 대체 선발이 투입된다. 추격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선발전의 이닝 가치는 더 커졌다.

지난 10일 이의리의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에서 3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극적인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김건국의 어깨가 무겁다.

김건국은 16일 선발로 나서 SSG 김광현과 맞대결한다. 효율적인 피칭으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게 김건국에게 주어질 숙제다.

타석에서는 김도영에게 눈길이 쏠린다.

김도영은 14일 한화전에서 선두타자 조구 홈런을 장식하는 등 지난주 3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0.462



6연승 중인 KIA가 16일 SSG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야수 막내' 김도영은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 타석 전면에 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의 타율로 9타점을 수확했다. 몰론 김도영의 타격 페이스, 문학 강세도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김도영은 지난해 문학 경기에서 39타수 17안타, 0.436의 타율을 찍는 등 SSG 안방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마운드 위기 상황에서 김도영이 화끈한 방망이로 기싸움을 해줘야 한다.

'최고참' 최형우의 성적도 관심포인트다. 최형우는 개인 통산 4000루타 기록을 눈앞에 두

고 있다. 앞으로 '4루타'를 더하면 이승엽 두산 감독(4077루타)에 이어 KBO리그 역사에서 4000루타 고지에 오르는 두 번째 선수가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4일(현지시간) 조지아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스코티 셰플러가 우승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셰플러 천하'...마스터스 2번째 제패 '시즌 3승'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셰플러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셰플러는 1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번째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마스터스 정상에 오른 셰플러는 이번 시즌 벌써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7세인 셰플러보다 더 어린 나이에 마스터스에서 두 번 우승한 선수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그리고 세베 바예스테로스(스페인) 3명뿐이다.

PGA 투어 통산 9승째를 따낸 셰플러는 최근 4차례 대회에서 우승-우승-2위-우승이라는 조강세를 보이며 새로운 골프 황제로 자리 잡을 태세다.

이번 시즌 출전한 9번 대회에서 7차례 톱10에 입상했고 가장 나뉘던 순위가 공동 17위였다.

마스터스 우승 상금 360만 달러를 받은 셰플러는 시즌 상금이 1509만 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시즌 벌어들인 상금 2101만 달러의 70%를 넘어섰다.

마스터스뿐 아니라 메이저대회에는 처음 출전한 신에 오베리는 우승 경쟁 끝에 준우승(7언더파 281타)을 차지해 차세대 기대주의 가치를 입증했다.

모리카와, 호마, 그리고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등이 공동 3위(4언더파 284타)를 차지했다.

LIV 골프 선수로는 브라이언 디샬보(미국)와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함께 공동 6위(2언더파 286타)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공동 9위(이븐파 288타)에 오른 티릴 해던(잉글랜드)까지 3명의 LIV 골프 선수가 톱10에 진입했다.

첫 메이저대회 톱10 기대에 부풀었던 안병훈은 3타를 잃고 공동 16위(2오버파 290타)에 만족해

야 했다. 안병훈은 2017년 공동 33위였던 마스터스 개인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김주형과 김시우가 나란히 공동 30위(5오버파 293타)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김주형은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제출했다. 김시우도 2언더파 70타를 쳤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22위(4오버파 292타)에 그쳐 그랜드 슬램은 내년으로 또 미뤘다. 디펜딩 챔피언 윤 람(스페인)은 공동 45위(9오버파 297타)로 대회를 마쳤다.

24년 연속 컷 통과와 위업을 달성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5타를 잃고 컷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최하위로 처졌다.

우즈가 제출한 16오버파 304타는 그가 프로 무대에 나선 이후 최악의 스코어다. 그러나 14개월 만에 정규 투어 대회에서 72홀을 완주해 희망을 남겼다.

/연합뉴스

“볼로 인식했다고 하라”

NC-삼성전 ABS '판정 조작' 논란 심판진 직무 배제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 '판정 조작' 논란을 일으킨 심판진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KBO가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NC-삼성 경기의 심판 팀장 이민호 심판위원, 주심 문승훈 심판위원, 3루심 추병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심 논란의 중심에 섰다. NC 선발 이재학의 3회 피칭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NC가 1-0으로 앞선 2사 1루에서 이재학이 이재현을 상대로 2구째 직구를 던졌고 주심은 '볼'을 외쳤다. ABS의 판정은 '스트라이크'였다.

ABS가 판정한 결과는 '인이어'를 낀 주심에게 전달이 되고 오류로 인한 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은 ABS 판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판정에도 문승훈 주심은 '볼'을 판정했고, ABS 판정이 표기되는 턱아웃 태블릿 PC를 통해 '스트라이크'를 확인한

NC측이 심판진에 항의했다.

오심 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NC항의를 받은 심판진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고, 이민호 심판 조장은 볼로 음성이 전달이 됐으며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BS의 오류'라며 책임을 넘긴 심판진은 '어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심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4심 합의 과정에서 이민호 조장이 "음성은 볼로 인식했다고 하라"는 오심 책임 회피를 위한 발언을 한 게 TV 중계에 잡히면서 '판정 조작' 논란으로 확산했다.

KBO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나섰다.

또 주심이나 3루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 수신에 혼선이 생길 경우 ABS 현장 용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매뉴얼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배구 2쿼터 트라이아웃 기대주 대거 참가

29일~5월 1일 제주서 진행

2024 KOVO 여자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이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제주 한라체육관과 선화호텔에서 진행된다.

KOVO(한국프로배구연맹)는 2024 여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 일정과 참가 선수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쿼터에 37명의 선수가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여자부 7개 구단의 평가를 거쳐 그 중 3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2023-2024시즌 V리그에서 활약한 7명 중 레이나(중국생명)를 제외한 6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총 3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시즌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메기왓티 퍼티위(KGC인삼공사)와 위파위 시통(현대건설), 사전 조사에서 여러 구단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중국 출신의 미들블로커 위 장이 기대주로 꼽힌다.

직전 시즌 하위 3개 팀이 역순으로 구슬 30개, 25개, 20개를 추첨기에 넣어 지명 순서를 먼저 배정받는다. 이어 상위 4개 팀이 구슬을 20개씩 넣어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해 V-리그에 처음 도입된 아시아쿼터를 통해 필리핀-미국 이중국적인 엠제이 필립스를 영입했다.

당시 5순위 지명권을 얻은 페퍼스는 미들 블로커 필립스의 영입으로 팀내 공격력을 강화했다.

아시아쿼터는 팀당 1명씩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 제한과 별도로 아시아 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으로 선발된 선수의 연봉은 1년 차 12만 달러, 2년 차 15만 달러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